

진화하는 개미(개인투자자)들의 행진

< Executive Summary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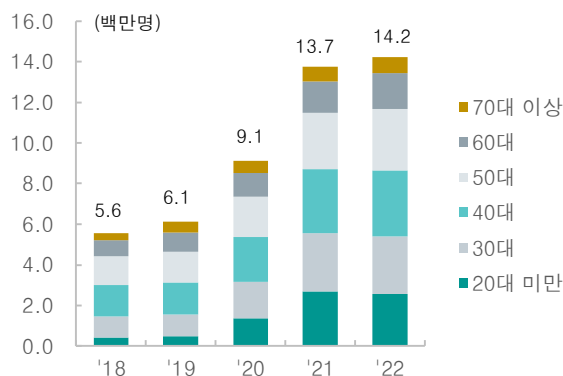
■ 팬데믹 이후 전개된 주식투자 붐으로 개인투자자의 저변 및 영향력이 확대

- 팬데믹 직후의 동학개미 열풍은 과거 주식투자 열풍과 달리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해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며 전개
- 개인투자자의 절대적 규모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확대되고 투자자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증시에서 존재감 증가
- 월급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대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중의 투자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

■ 개인투자자는 시장변화에 맞춰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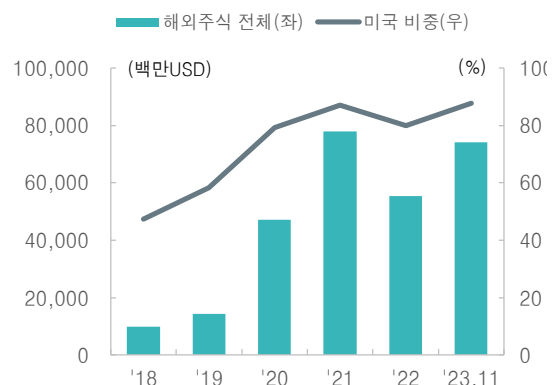
- 투자자산 중 접근이 용이하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주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으며, 개인투자자의 경험·지식 확대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모습 뚜렷
- 개인투자자는 과거 투자경험 및 자발적 학습을 기반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 및 다양한 증권상품으로 투자를 확대
- 소액주주 소통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주권을 행사

그림 | 연령별 상장법인 개인소유자(주주) 현황



주: 각 연도말 시점의 소유자 내역 자료 기준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

그림 | 해외주식 보관액 추이


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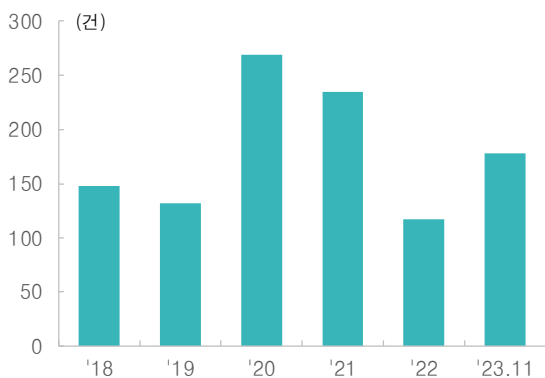
■ 하지만 손실위험을 확대하는 단기 집중투자 등 비합리적 투자행태는 여전

- 분산투자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으나 몰빵투자, 단기간 테마주 갈아타기 등 편향된 투자행태는 여전히 지속
- 투자정보 채널로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, 팬덤화된 개인투자자의 증가로 새로운 금융사기 가능성에 노출

■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성숙한 투자문화 형성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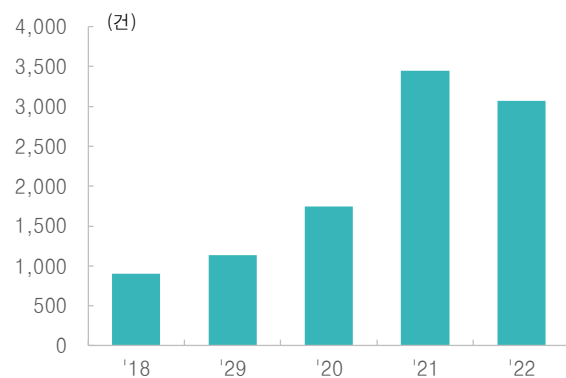
-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래대금 및 투자자예탁금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는 지속될 전망
- (정부)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 고도화,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
- (금융회사)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, 안전한 거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
- (개인투자자) 특정 정보 및 종목에 매몰되는 습관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접근

그림 | 단기과열종목 지정 수



주: 각 연도별 지정 건 수
자료 : 한국거래소

그림 |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 건수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수석연구원 이재완 jwan.lee@hanafn.com

Key Words : 개인투자자, 개미, 주식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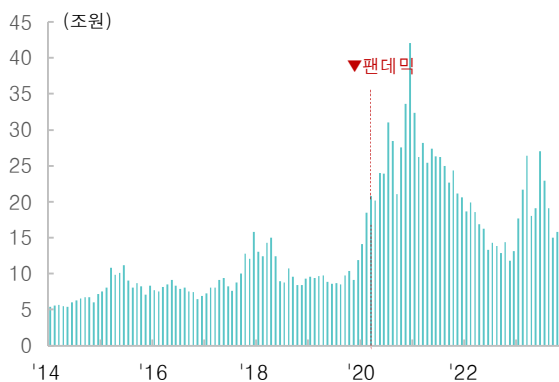
I. 새로운 개미들의 등장

1. 팬데믹 이후 전개된 주식투자 붐으로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 증가

■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가 등장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 및 저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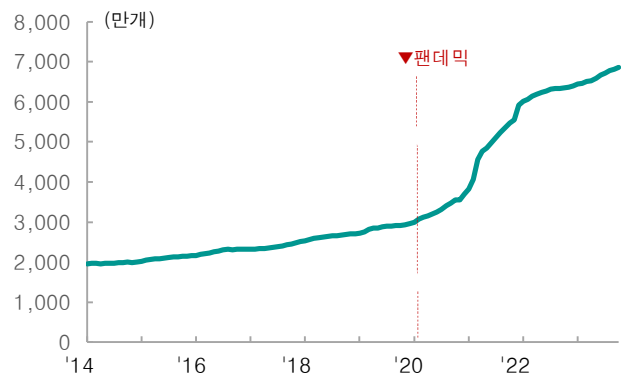
-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‘개미’는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며 증시에서 주요 참여자로 주목받기 시작
 - 팬데믹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나 '20년 3월 이후 팬데믹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되며 개인 주식투자자가 급증
 - 과거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은 미미했으나 팬데믹 시기 외국인·기관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, 증시를 방어하며 ‘동학개미’라는 신조어가 등장
- 팬데믹 이후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가 대규모로 시장에 진입
 - 일평균거래대금은 '19년 9.3조 원에서 '21년 27.2조 원으로 급상승하였으며 증시환경이 악화된 '23년에도 11월 기준 19.7조 원 수준으로 한 단계 높아진 투자규모를 유지
 -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¹⁾는 '20~'21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'23.11월 기준 6,870만 개 수준으로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 -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'17년 63.3%에서 '23.11월 67.8%로 증가

그림1 | 일평균거래대금



주 : 일평균거래대금은 코스피, 코스닥 거래대금의 합
자료 : 한국거래소

그림2 |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



자료 : 금융투자협회

1) 예탁자산 10만원 이상, 최근 6개월간 1회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

■ 주식투자 붐은 증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지만 ‘동학개미’는 새로운 양상

- 과거 나타났던 주식투자 열풍은 경제 호황기, 다양한 경제변수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간접투자 확대(2)로 진행2)
 - '80년대 후반 :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‘3低 호황’(저유가, 저달러, 저금리 현상)에 따른 경제 성장기에 개인 금융자산이 확대되면서 주식투자도 증가
 - '98~99년 :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와 ‘닷컴버블’로 일컬어지는 IT 관련 신산업이 격동기를 겪으면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며 간접투자 시장이 정착
 - '00년대 중반 : 기관투자자의 증시 유입 확대(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등), 중국 효과로 인한 고성장 및 저금리 기조 정착으로 주식형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
- 동학개미 열풍은 팬데믹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및 부의 축적을 향한 절박함으로 직접투자가 주를 이루며 전개
 - 과거 주식투자 열풍이 나타났던 시기와 유사하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공통적 시대 배경이나 저변에 깔린 개인투자자들의 심리 및 시장의 상황은 상이
 - 노동과 저축만으로 자산 증식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'20년 이후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느끼는 대중들의 좌절이 주식투자의 원동력으로 작용
 - 기술발달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경험 공유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접투자 심리가 확산

그림3 | 코스피 지수 추이와 개인투자자 주식투자 확대시기



주 : 코스피 지수는 월별 증가평균
 자료 : 한국거래소, 하나금융경영연구소

2) 중앙일보, “3저호황, 외환위기, 펀드 붐 ... 격랑 헤치며 세계 11위”, 2015.09.23, 기사참조

2. 개인투자자가 다양화되고 많아지면서 시장에서 존재감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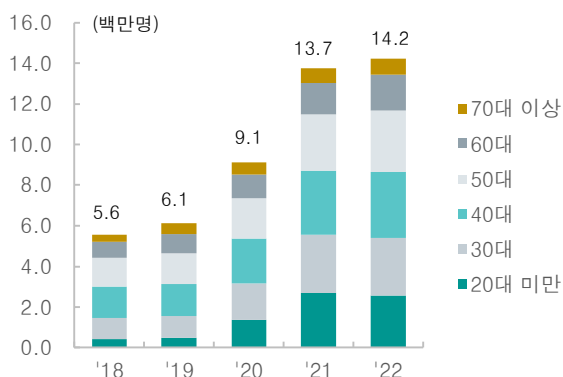
■ 개인투자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확대되며 시장에서의 영향력 또한 강화

- '21년 이후 개인투자자의 급격한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나 개인투자자의 규모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확대
 - 국내 개인투자자는 '18년 5.56백만명에서 '22년 14.24백만명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/4에 해당하는 수준
- 코스닥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도 점차 확대
 -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소유주식수 비중이 '18년 33.4%에서 '22년 37.9%로 확대되었으며, 코스닥시장에서의 비중은 65% 이상을 유지

■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비중도 증가하는 등 개인투자자 유형이 다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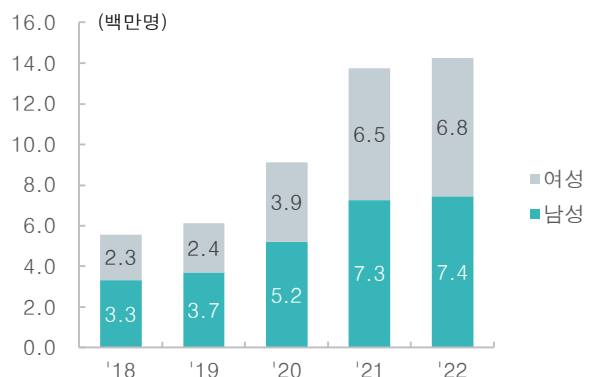
- 40-50에 집중되어 있던 개인투자자의 연령대가 젊은층, 고령층 전반으로 확산
 - 젊은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미성년자 계좌 개설, 20대의 주식투자 붐에 힘입어 30세 미만 투자자 비중이 '18년 7.4%에서 '22년 17.9%로 급격히 확대
- 여성 투자자 수는 4년 만에 3배 급증하며 주식소유자 중 여성의 비중은 '18년 40.5%에서 '22년 47.8%로 증가
 - 여성 투자자 수는 '18년 225만명에서 '22년 681만명으로 확대

그림4 | 연령별 상장법인 개인소유자(주주) 현황



주 : 각 연도말 시점의 소유자 내역 자료 기준
 자료 : 한국예탁결제원

그림5 | 성별 상장법인 개인소유자(주주)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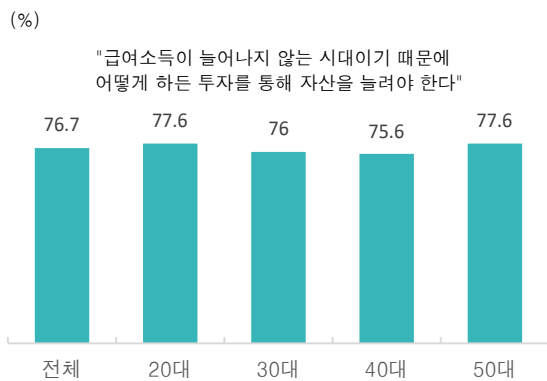


주 : 각 연도말 시점의 소유자 내역 자료 기준
 자료 : 한국예탁결제원

3. 시대상황 돌파를 위해 대중에게 투자는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

- 월급,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어 투자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진입
 - 최근 고금리 등 주식시장 악재로 주식투자 열풍이 위축되었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축적이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면서 대중의 투자 생활화가 촉진되기 시작
 - 통계청의 조사결과('23.11)³⁾, '21년 한국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 대비 6.2% 증가한 1,148.8조원이고 근로소득은 5.7% 증가한 1,040조원으로 총소비가 근로소득을 초과
 - 통계청의 조사결과('23.11)⁴⁾, '23년 3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.1%인데 반해 먹거리 물가는 5~6% 증가하며 5분기 연속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상회
 - 엠브레인의 조사결과('23.4)⁵⁾, 응답자의 76.7%가 ‘급여소득이 늘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야 한다’고 응답
 - ‘백세시대 환갑퇴직’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산투자는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 연령에 걸친 미션으로 자리매김⁶⁾
 -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.6세이나 61세 이후 생애주기 적자에 진입함에 따라 1인당 근로소득은 43세를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
 - 길어진 기대수명에 대응하여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투자는 전 연령에 걸친 이슈로 대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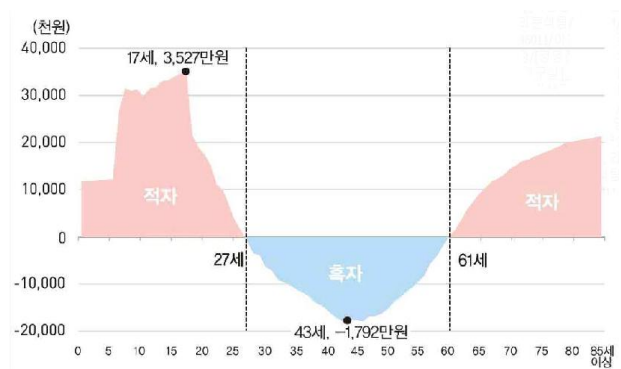
그림6 | 자산 중대를 위한 투자 의향



주 : N=1000
자료 : 엠브레인

- 3) 통계청, 2021년 국민이전계정, 2023.11.28
- 4) 통계청, 2023 3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, 2023.11.23
- 5) 엠브레인, 2023 주식투자 및 투자 경험 관련 조사, 2023.04
- 6) 한국일보, “주식투자 열풍 뒤에 ‘인구변화’ 있었네”, 2021.07.10, 기사참조

그림7 | 1인당 생애주기



주 : 2021년 국민이전계정 분석 결과
자료 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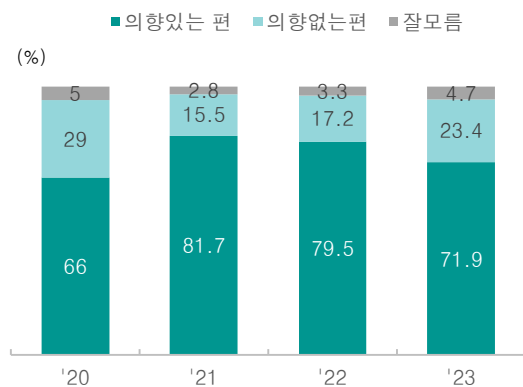
II. 주식투자에서 개미들의 진화

1. 투자자산 중 접근이 용이한 주식이나 증권상품을 직접 거래하려는 경향 확산

- **주식이 대중에게 보편적인 투자자산이자 수익원 다변화 수단으로 자리매김**
 - 선호하는 투자자산으로 알려졌던 부동산은 각종 규제 강화 및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대중의 접근이 어려워짐
 - 접근성이 높고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가 확대
 - 엠브레인의 조사결과('23.4), '23년 71.9%의 응답자가 향후 주식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며 코로나19 이전인 '20년 66.0% 대비 높은 투자 의향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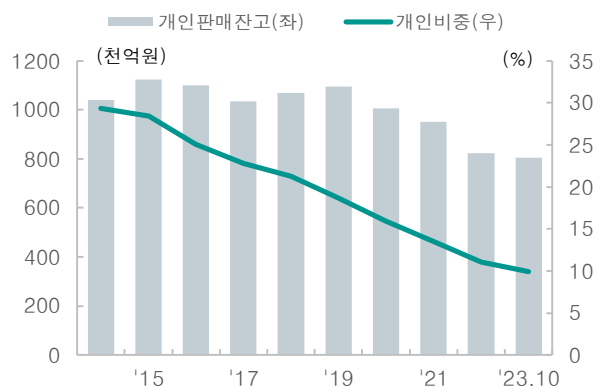
- **간접투자 신뢰 하락, 개인투자자 경험 확대로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모습이 뚜렷**
 - 간접투자 상품의 수익률 부진, 부실판매 이슈 등으로 간접투자에 대한 신뢰 하락
 -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의 경우 펀드판매잔고 기준으로 개인투자자가 비중이 '10년 43.2%에서 '17년 23.8%, '23.10월에는 9.9%로 급격히 감소
 - 개인투자자의 투자지식·투자경험이 확대되고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면서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확대
 - 금융회사들도 개인투자자 확보 및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MTS 고도화,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며 주식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

그림8 | 주식투자 의향



주 : N=1000
자료 : 엠브레인

그림9 | 펀드판매잔고 중 개인투자자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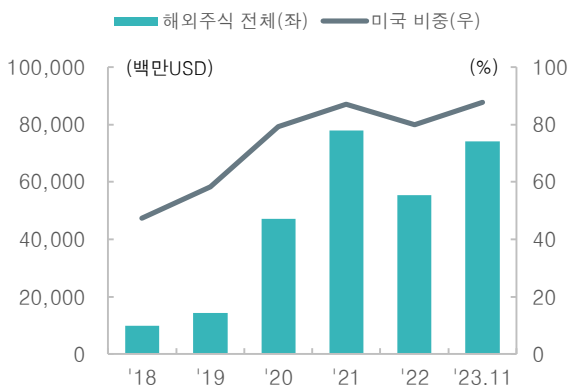
주 : 공사모 전체 연말 판매잔고 기준.
ETF, 부동산, 특별자산펀드 등 제외
자료 : 금융투자협회

2. 시장변화에 맞춰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

■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투자 기회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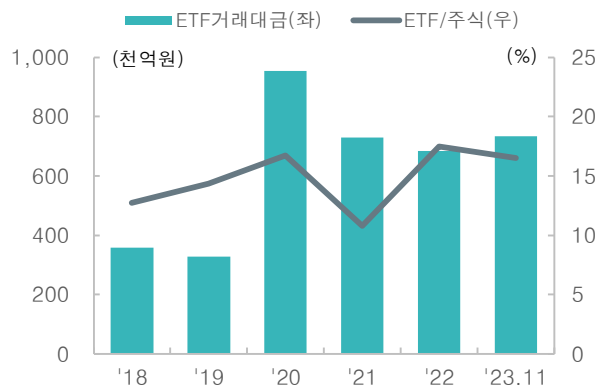
- 개인투자자는 과거 투자경험 및 자발적 학습을 기반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식시장으로 투자를 확대
 - 주요국 금리 및 주식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투자 영토를 넓혀 서학개미(미국), 일학개미(일본), 중학개미(중국), 불개미(프랑스)로 다변화
 - 테슬라, 애플 등 해외기업에 친숙하고 거부감이 적은 젊은 층이 서학개미의 투자를 주도하였으며 최근 역대급 엔저 환경이 이어지자 일학개미가 전성시대를 맞이
- 국내 개인투자자는 개별 상장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ETF, 인버스 ETF, 공모주 투자, SPAC투자, 비상장투자 등으로 다양화된 투자상품을 경험
 -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한 간접투자 상품이지만 직접 매매가 가능한 ETF는 팬데믹 이후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'19년말 52조원에서 '23년 11월말 120조원 (순자산총액 기준) 수준으로 급격히 성장
 - 주가 상승 시에만 투자하는 것을 넘어 증시 하락 예상 시 주식이 하락할수록 이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
 - 상장을 통한 고수익을 목표로 공모주투자 뿐만 아니라 위험이 높은 SPAC투자, 비상장 투자 등으로 투자상품을 확대

그림10 | 해외주식 보관액 추이



자료 : 한국예탁결제원

그림11 | ETF 거래대금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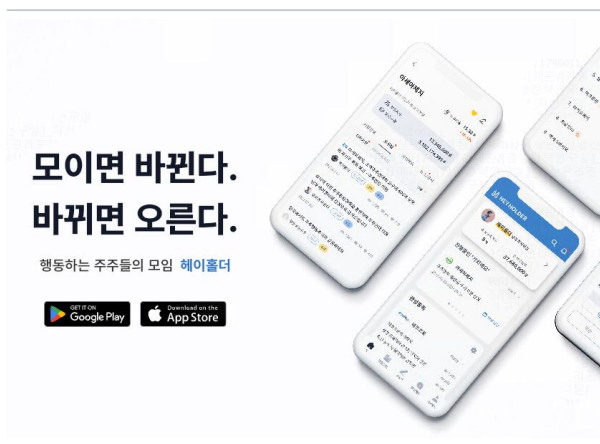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거래소

■ 개인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주권을 행사

- 투자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 소통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결집과 의견개진이 용이
 - 저변이 확대된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네이버 카페, 카카오톡 오픈채팅,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히 의견을 공유
 - ACT, 헤이홀더 등 소액주주 소통 앱이 등장함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모으고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
 - '17년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 후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
- 소액주주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지분을 결집하여 투자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해 기업 체질 개선을 독려
 - DB하이텍, 이화그룹 아세아제지, 에치에프알 등의 소액주주들은 소통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여 물적 분할 반대, 주주환원 정책 개선, 기업 정상화를 위해 영향력 행사
 - '24년 온라인 주주총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주총 참여와 의견개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투자한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 관련 의사결정에도 영향
 - 최근 소액주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매도 금지,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 결정에 영향력 행사

그림12 | 소액주주 소통 플랫폼 헤이홀더



자료 : 헤이홀더 홈페이지

표1 | 소액주주 연대의 주요 주주제안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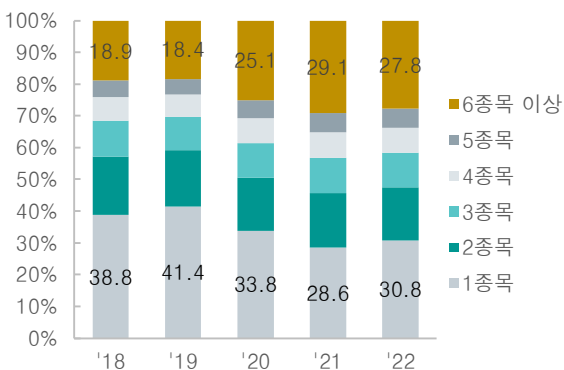
회사명	제안 내용	결과
일신방직	- 자사주 소각과 매수, 액변분할 - 회사 소유 미술품 목록 공개	▶ 일부 수용
한국철강	- 배당금 확대 - 자사주 매입 및 소각	▶ 주총에서 부결
KISCO 홀딩스	- 감사 선임과 정관 변경	▶ 주총에서 부결
아세아제지	- 배당금 확대 -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	▶ 일부 수용
이화그룹	- 경영진, 이사진 교체 - 거래정지된 3개 계열사 거래재개	▶ 진행 중

자료 : 언론 보도자료

3. 손실위험을 확대하는 집중 투자, 특정 정보 맹신 등 비합리적 투자행태는 여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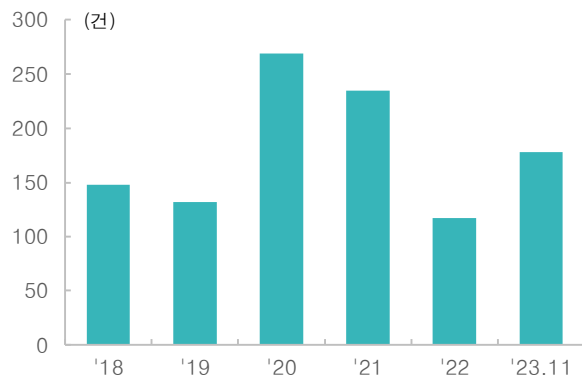
- 일부 종목에 대한 단기투자, 테마주 집중투자 등 편향된 투자행태를 지속
 - 팬데믹 국면에서 개인투자자의 약 46%는 투자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과잉 확산, 복권형 주식 선호, 단기군집거래 등의 비효율적 투자행태와 연관)
 -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투자행태는 투자성과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투자자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행태와 투자습관 개선이 필요
 - 분산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분산투자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
 -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종목에 집중 투자한 주주 비중이 '18년 38.8%에서 '22년 30.8%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소폭 증가
 - 6종목 이상 투자한 주주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'22년 소폭 감소
 - '20년 이후 테마주, 급등주 쏠림 현상이 강화되었으며 테마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지속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투자대상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동
 - '23년에는 2차 전지(2~7월), 초전도체(8월 초), 맥신(8월 중순), 양자컴퓨터(8월 말), AI의료(9월 초), 정치 테마주(11월) 등 다양한 테마주가 단기간에 변화
 -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적 투자가 아니라 대외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기적 투자가 확대

그림13 | 상장법인 주주들의 보유 종목 수별 비중



자료 : 한국예탁결제원

그림14 | 단기과열종목 지정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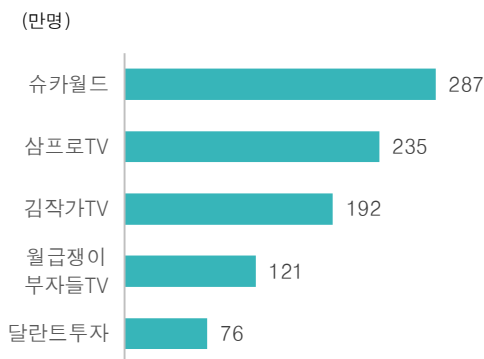
주 : 각 연도별 지정 건 수
자료 : 한국거래소

7) 자본시장연구원, 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익과 거래행태, 2022.02

■ 소셜미디어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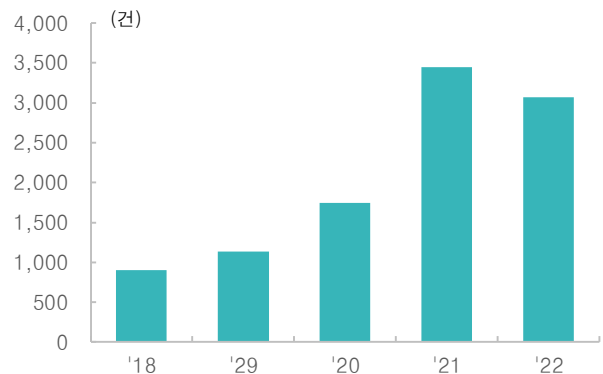
-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투자정보 채널로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
 - 동학개미 운동 이후 핀플루언서(Financial + Influencer), 투자리딩방 등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다양한 투자의견 제시, 지식 공유, 양방향 소통을 하며 인기몰이
 - 수만~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 및 투자방 운영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허위정보 확산, 유명세를 활용한 사기 등의 부작용 또한 증가
- 핀플루언서를 믿고 투자하는 팬덤화된 개인투자자 증가로 핀플루언서에 의한 투자손실 및 투자피해 우려가 점증
 -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핀플루언서의 투자의견을 신뢰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였으며 일부는 핀플루언서의 말을 믿고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행태를 보임
 - 핀플루언서가 험값에 특정 주식을 매입한 뒤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선행매매가 전형적인 사기 유형
- 초보 투자자들이 투자정보 확보를 위해 가입한 투자리딩방과 관련된 사기 급증
 - 불법 투자리딩방(유사투자자문서비스) 관련 피해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금액이 확대되고 피해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확산⁸⁾
 - 투자리딩방을 통한 사기는 선행매매 뿐만이 아니라 상장 예정이 없는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속이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

그림15 | 주요 경제,투자관련 유튜브 구독자수



주 : '23년 11월말 기준
자료 : 유튜브

그림16 |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 건수



자료 : 금융감독원

8) 뉴스핌, “투자리딩방 사기 '기승'...“피해자 상당수 생계자금 개미투자자”, 2023.05.10, 기사참조

III. 성숙한 개미들의 행진을 위한 선결 과제

- **동학개미 투자열풍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투자자 기반 확대로 연결**
 - 팬데믹을 거치면서 거래대금 및 투자자예탁금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자산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는 지속될 전망
 - 일평균거래대금 : '19년 9.3조 원 → '21년 27.2조 원 → '23.11월 19.7조 원('23년 일평균 일거래대금 최저점은 13.1조 원(1월))
 - 투자자예탁금 : '19년 27.3조 원 → '21년 67.5조 원 → '23.11월 48.5조원('23년 투자자예탁금 최저점은 46.1조 원(10월))
 - 최근 시장환경 악화로 거래대금이 감소하였으나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 및 투자지식이 과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거래대금은 일정 수준이상 유지될 전망
- **확대된 개인투자자를 기반으로 국내중시가 활성화되고 개인투자자의 안정적인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성숙한 투자문화를 유도할 필요**
 - (정부)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을 고도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도 회복,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
 - 최근 CFD 사태(SG발 추가폭락), 글로벌B 불법 공매도, 빙튀기 상장 논란 등과 관련하여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점검
 - 핀플루언서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금융상품/서비스 홍보에 대한 지침 마련
 - 단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 정비
 - (금융회사) 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투자정보(자문)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
 -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객관적인 투자정보 및 투자 가이드 마련
 - 다변화된 투자자 연령대 및 투자경험을 고려해 유형별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
 - (개인투자자) 특정 정보 및 종목에 매몰되는 투자습관을 버리고 장기적으로 접근
 - 유명인 및 지인을 통해 확보한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단기 차익을 노린 몰빵투자를 지양하는 한편, 다양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투자 습관을 형성

[참고문헌]

- 김민기, 김준석(2021), “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: 투자행태와 투자성과”, 이슈보고서 21-11, 자본시장연구원
- 김민기, 김준석(2022), “국내 개인투자자의 행태적 편익과 거래행태”, 연구보고서 22-02, 자본시장연구원
- 김학균(2015), “4월 주식시장 전망, 외국인보다 가계자금을 봐야 할 시기”, KDB DAEWOO DAILY, pp.7-8
- 엠브레인(2023), “2023 주식투자 및 투자 경험 관련 인식 조사”, 보고서 TK_202304_TRY8927
- 이승호(2015), “3저호황, 외환위기, 펀드 붐 ... 격랑 헤치며 세계 11위”, 중앙일보
- 이태호(2020), “시장의 기억(한국의 자본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)”, 어바웃어북
- 전영수(2021), “주식투자 열풍 뒤에 ‘인구변화’ 있었네”, 한국일보 기고문
- 조재완, 조민교(2023), “투자리딩방 사기 ‘기승’...피해자 상당수 생계자금 개미 투자자”, 뉴스핌
- 통계청(2023), “2023년 3/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”, 보도자료
- 통계청(2023), “2021년 국민이전계정”, 보도자료
- 한국예탁결제원(2023), “‘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”, 보도자료

하나Knowledge+

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(을지로 2가,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)
TEL 02-2002-2200
e-mail hanaif@hanafn.com
<http://www.hanaif.re.kr>



하나금융경영연구소



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

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→ QR코드 스캔 → 채널 추가

